meritz

Transport Valuechain Da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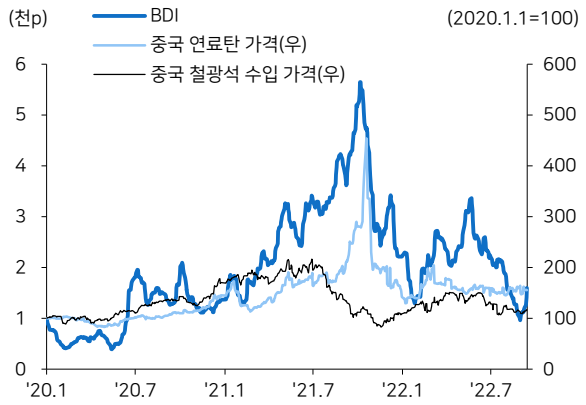
2022. 9. 15 (목)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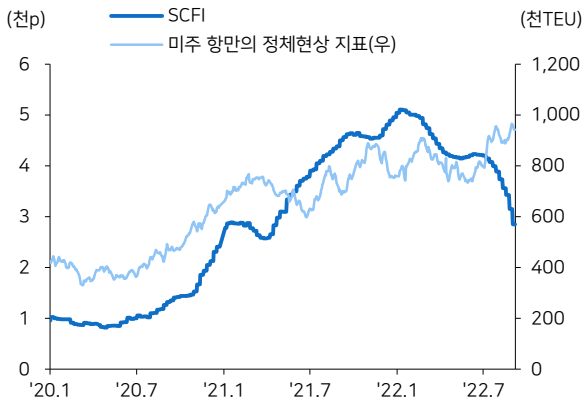
meritz 메리츠증권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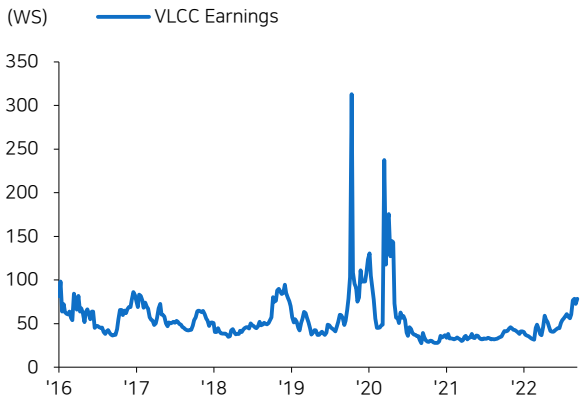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595.0p(+187.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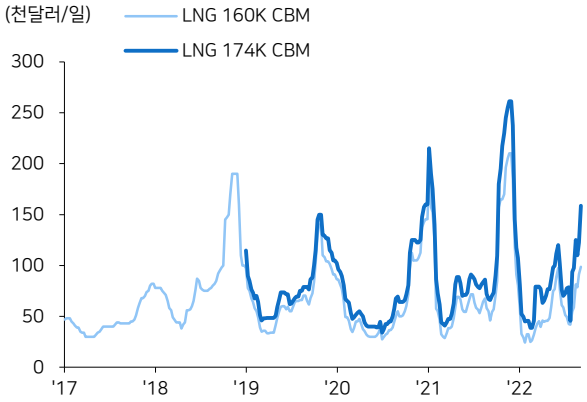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2,562.1p(-285.5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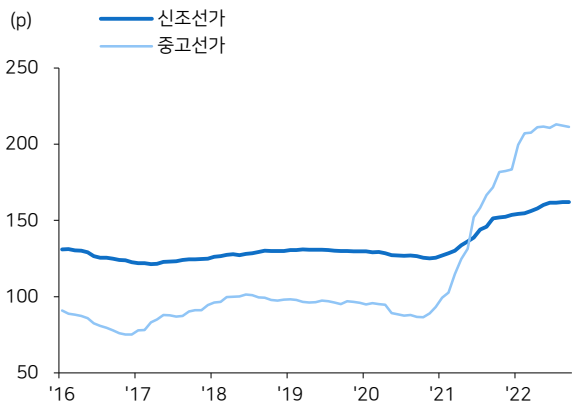
VLCC Spot Rate 78.4p(+5.7p WoW)



LNG Spot 운임 98.8p(+7.3p WoW) 158.8p(+36.3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2.4p(+0.2p WoW) 211.3p(-0.3p WoW)



항공시장 지표 259.6p(-1.8p DoD) 88.5p(+0.2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현대삼호중공업, 중동 선사로부터 자동차운반선 2척 3,318억 규모 수주

현대삼호중공업이 중동 선주로부터 3,318억원(2.4억달러) 규모 자동차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2025년 8월말까지 인도될 예정임. (비즈니스포스트)

'2.2조 잭팟' 현대글로비스, 사상 최대 완성차 해상운송 계약 체결

현대글로비스가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와 3년간 2조 1,881억원규모의 초대형 완성차 해상운송계약을 맺었다고 보도됨. 글로벌 완성차 해상운송 시장에서 선사가 자동차 제조사와 경쟁입찰로 맺은 단일 계약 중 최대 규모로 알려짐. (아시아경제)

세계 2위 쌀 생산국 인도, 수출 제한 나선다…식량위기 확산 우려

세계 2위 쌀 생산국인 인도가 밀과 설탕에 이어 쌀 수출까지 일부 제한한다고 보도됨. 지난 8월 미국 농무부 통계에 따르면 인도는 이상기온으로 쌀 생산량이 전년대비 0.9% 감소한 바 있음. 지난 9일부터 싸라기(부스러진 쌀알) 수출을 금지하고 현미와 정미 수출 시에는 20%를 추가 과세하기로 결정함. 싸라기는 동물사료나 에탄올 제조에 사용되는 쌀로, 개도국이 주로 수입함. (아시아경제)

Capesize bulker rates jump 45% in a day to reach five-week high

Capesize 운임이 몇 주간의 폭락 이후 반등했다고 보도됨. Capesize 5TC는 수요일(14일) 12,977달러/일까지 45% 상승하며 5주래 최고치를 기록함. 철광석을 수송하는 C14 중국-브라질 항로 운임이 36% 상승했고, C10 서호주-중국 항로 운임도 33% 상승해 큰 기여를 했다고 언급됨. 다만, Breakwave에 따르면 Capesize운임은 반등을 보였으나 벌크 평균 Spot운임은 여전히 역사적, 계절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언급함. (Tradewinds)

중국, 서방 금수조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해 '횡재'

중국이 미국과 EU의 금수 조치 속에 러시아산 석유 · 석탄 · 가스를 싼값에 수입하며 큰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보도됨. Reuters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 4~7월 러시아산 원유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17%, 석탄과 LNG 수입량도 각각 50%, 6% 증가함. 중국은 러시아 에너지 구입에 총 436.8억달러를 지출했는데, Reuters는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 구입으로 4~7월 약 30억달러를 절약했다고 추산함. 한편, 15~16일 중국-러시아 대통령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언급함. (연합뉴스)

Saudi oil output nears capacity as it hits 11 million bpd in August

OPEC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8월 원유생산량이 11MBPD를 상회하며 2년래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보도됨. 업계에 따르면 사우디의 생산 가능량은 약 12MBPD이고, 2027년까지 13MBPD까지 확장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언급됨. 업계는 사우디가 생산 한계에 다다랐다고 분석한다고 보도됨. (Upstream)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